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말기신 그 길을 / 새 힘 얻으리 은혜 아래 있네 / 우리 주 하나님	다같이
대표기도		전 춘우
*성경봉독	골 3:23-24	정재희
말씀	일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삶으로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삶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내 모든 것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내 모든 것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일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골 3:23-24)

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24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일터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과연 성경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이 일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 특별히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탁월함 (Excellence)을 추구하라. 단, 다른 목적으로!”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탁월함을 추구하지만, 기독교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그 분이 우리도 탁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탁월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From professional to purposeful” “From contract to covenant”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먼저, “**직무적 탁월함**”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일에 정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품적 탁월함**”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계랑 달라서 감정적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이는 좋은 성품에서 나오며, 이것이 뒷받침될 때 조직은 더더욱 번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탁월함**”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는 부드러울 때 부드럽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때조차 그것을 경우에 맞도록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직무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성품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그의 성품은 주변을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신뢰할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보인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일개 몸종으로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직무적으로 탁월했는지, 성경은 그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며, 관계적으로도 충직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탁월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의 위기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둘째, “차별화” 하라. (거룩 = 구별됨)

거룩함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독교인이 포기하면 안 되는 덕목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은 신앙의 핵심에 위배되는 영역에 대해서입니다. 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평소 이방풍습과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핵심부분인 음식규정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상관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의 관행을 안 지키거나, 나만 유별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직업을 주신 분, 내 진정한 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차별화는 영적 파워와 정비례합니다.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사람은 분명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중심” “이웃사랑”을 내면화 하라.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람중심, 인간애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과 성과주의가 팽배한 사회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사회는 휴머니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은 다소 비판적일지라도, 이 분야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더더욱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산책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싸움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너무 강할 때 기억하십시오. 원래 일과 일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일터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이름과 권세, 일터도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창조부터 말세까지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가이드라인 (직업군별 나눔)

1. 내가 탁월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또한, 내가 더욱 탁월해지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직무적/성품적/관계적 탁월함) 또한, 어떻게 탁월해질 수 있을지 나눠보세요.
2. 내가 직장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제한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객관적인 문제인가, 내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인가?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시도하기로 결단한 부분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3. 나는 휴머니즘과 인간애를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나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각자 경험을 통해 나눠보세요.
4.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배웠거나, 결단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회원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 지침은 마스크가 옵션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직업별 소그룹 모임

예배 후에 설교말씀을 가지고 직업별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강사 : 왕용민 선교사님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주제: 다시금 교회로! Back to Ecclesia!
표어: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살아가자!"
회비: 일반 \$80, 학생 \$75
(가족할인: 두번째 사람은 \$5할인, 조기등록할인(8/28까지: 각 \$5씩))
*회비 납부는 안혜진 자매 (벤모 ID: @Jinny0714)로 해주세요.
(등록을 위한 QR 코드를 주보에 넣어주세요)



수련회신청 바로가기

김상범 목사님 심방

김상범 목사님께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Zoom, 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QR코드 주보에 부착해요~)



심방신청 바로가기

찬양팀원 모집

건반 -1명, 베이스기타 -배우고 싶은 분들 환영 (문의:조학영)

예배팀원 모집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1명 (문의: 박정호, 신승윤, 안혜진)

새가족/새신자 등록 카드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SCAN ME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32호

AUG 21
2022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